
1960·70년대 부산 신발산업의 성장과정 연구

장지용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목 차

I. 서론	1) 생산과 수출의 변화 분석
II. 통계자료의 정비와 분석범위	2) 노동력 구성의 변화 분석
1. 통계자료의 정비	3)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분석
2. 분석 범위	
III. 한국 신발산업 성장과 부산	IV. 결론
1. 한국 신발산업 성장과정과 특징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2. 주요 신발 생산업체의 변화와 부산	부표

I. 서론

기차표(동양고무), 범표(삼화고무), 말표(태화고무), 왕자표(국제화학).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졌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발 브랜드였고, 부산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으로서의 신발산업을 주도했던 이름들이다. 처음 신발수출이 시작된 1962년 국제상사는 자본금 7억5천만원, 종업원수가 1,983명이었고, 태화고무의 경우는 자본금 2억원에 종업원수가 947명에 달하였다.¹⁾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77년의 경우 국제상사의 직원은 5,826명이었고, 사상공장의 종사자수는 무려 14,798명이었다. 국제상사 이외에도 진양화학 부산공장의 종업원수가 11,000명, 주

1)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감』, 1962, p.155-157.

식회사 대화는 11,010명, 주식회사 삼화의 경우는 종업원이 10,376명, 동양고무 5,361명 등 종업원 1만명 이상의 신발업체만 4곳에 이르고 있다.²⁾ 이들 신발업체는 합판, 섬유 및 봉제 산업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을 개척한 산업이기도 하다.³⁾

이러한 부산의 신발산업은 세계적인 불황이었던 1970년대 오일쇼크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고, 적어도 1986년까지는 생산과 수출, 그리고 고용이 모두 증대하였다. 1973년에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1977년에는 5억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영원할 것 같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 신발산업의 성장은 갑자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한때 세계 1위로 부상하며 부산을 대표하였던 삼화그룹의 「한국 생사」가 1984년에 부도 처리되었고, 22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서열 7위의 국제상사가 1985년에 공중분해 되었다.⁴⁾

과연 이러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의 몰락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방만한 경영, 무리한 사업 확장, 그리고 정치적 외압

2) 이 이외에도 풍영화성이 2,260명, 보생산업(주)2,362명, 대양산업 790명과 대양산업전포공장이 406명에 이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감』, 1977, pp. 66-68.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기업사』(2004)를 참고할 수 있다. 삼화그룹에 대해서는 pp.40-42, 국제그룹에 대해서는 pp.54-57, 그 외의 고무신 제조업은 pp.57-58와 p.79, 그리고 동양고무와 화승에 대해서는 pp.76-79를 참조할 수 있다. 신발산업 일반에 대해서는 pp.235-243을 참조할 수 있다. 국제상사의 성립과 해체에 대해서는 김대래, 『부산의 기업과 경제』, 도서출판 세화, 2013, pp.209-216 참조.

3) 부산의 10대 수출상품을 보면 1967년부터 1974년까지는 신발이 거의 3위 내지 4위의 수출품이었고 1975년부터는 1977년까지는 2위의 수출 품목이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는 부산의 수출 중에서 신발이 항상 1위였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2권, 1990. pp.823-824, pp.844-845.

4) 국제상사에 대해서는 김대래 앞의 책, pp.209-216 참조. 또 부산지역 주요 신발기업의 생성과 해체에 대해서는 임정덕, 『부산경제론』, 부산발전연구원, 1994, pp.326-329 참조.

등 제시되는 원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장과정에 있다. 즉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신발산업은 그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구조적 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성장기로 알려진 시기를 중심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이 어떤 발전과정을 거쳤고, 어떤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II. 통계자료의 정비와 분석범위

1. 통계자료의 정비

신발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주로 수출통계에 집중되어 있다. 신발산업이 합판, 섬유 및 봉제 산업과 더불어 수출을 개척한 분야이며 주요한 수출산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초창기 신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생산과 관련된 통계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 등에 일부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⁵⁾

먼저 수출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신발수출조합에서 발간한 『한국신발수출통계』가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별 품목별 수출실적은 물론이고, 바이어별 수출실적, 연도별 상사별 수출실적을 정리하였고,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수량과 금액 모두를 제시하고 있어서 가장 풍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몇 군데 오류가 발견된다. 1970

5) 한국무역협회가 SITC에 의거한 무역통계는 1977년부터 신발에 대한 수출입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신발수출통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년 국별 수출실적을 보면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에 수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금액만 5,857천불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합계에는 분명히 제외되어 있고, 품목별 합계에도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분명한 오기이다. 또 같은 해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은 7천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액은 무려 5,283천불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시기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제품 평균가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다. 이 역시 오기로 판단된다. 이를 국별 품목별 수출금액의 합계를 고려하여 20천불로 수정한다.

또 1977년의 국별 수출수량의 총계가 181,180천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합계를 구해보면 181,828천족이다. 또 품목별 합계를 구해보면 181,180천족이다. 따라서 국가별 수출금액 중 어느 한 국가의 수출액이 잘못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벨기에의 813천족이 831천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74년의 국별 수출금액도 제시된 합계와 세부 합계의 결과에 450천불의 차이가 있다. 품목별 합계와 제시된 국별 수출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한 국가 이상의 수출액에서 오기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국별 합계는 맞지만 품목별 합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도 있다. 1978년의 수량의 품목별 합계를 구해 보면 국가별 수출량과 364천족의 차이가 발생하고, 1979년의 수량 역시 국가별 합계에 비해 45천족 적다. 1985년은 국가별 수출 총액에 비해 2,000천불이 적고, 1987년에는 10,000천불 적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신발수출조합 자료 이외에 광범위한 시계열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것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발간한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1985)이다. 이 자료는 자료에 1970년

부터 1985년 6월까지의 신발생산실적과 내수 수출비중이 조사되어 있고, 1965년부터 1985년 6월까지 수출액과 수출수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김양화, 1986: 김용문, 1990)

그런데 이 자료 역시 몇 군데 오류가 발견된다. 생산실적을 보면 1973년의 내수 생산액이 68,245천족으로 되어 있지만 구해 놓은 비중으로 역산해 보면 65,245의 분명한 오기이다. 또 총수출과 신발 수출에 관한 자료에는 성장률의 계산이 여러 군데 맞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발간한 자료에서 제시한 것과 한국신발수출조합에서 발간한 『한국신발수출통계』 자료의 수치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뒤의 <그림 2>와 부표에서 보듯이 추세적으로 일치하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자료는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주)부산은행이 발표한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보고서(1975)』와 부산은행이 발행한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가 가장 대표적인 자료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도 앞에서 제사한 수출액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출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자료이면서 가장 긴 시계열을 갖춘 한국신발수출조합에서 발간한 『한국신발수출통계』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발간한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 자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산통계는 구체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기본자료로 한다.⁶⁾

6) 생산통계를 신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보고서』(1975)에서도 오류가 발견된다. <표 3-6>의 업체별 생산추

2. 분석 범위

한국의 신발산업의 발전과정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생성기, 도입기, 성장기, 정체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의 모든 기존연구가 1920년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륙고무공업사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56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

신발공업의 중심이었던 부산의 경우 1948년 이후 신발공장이 급격히 증가하여 1948년 말에 이미 71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중 하루 3만 켤레 이상 생산업체만도 14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또 1949년에는 국제고무공업사가 국제화학주식회사로 확대되면서 하루 6만 켤레 생산시스템을 갖추었다.⁷⁾ 따라서 성장기에서 해방이후를 제외한 것은 해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현실을 과소평가한 것이며, 해방으로부터 한국전쟁기를 모두 혼란기로 취급하는 기존의 통념에 따른 시대구분이라 할 수 있다.⁸⁾

반면 김양화는 각 시기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으로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해방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있고, 1962년을 기점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1960년대 일반적 특징으로 해외시장이 신발자본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이에 제시된 1972년 조일공업의 생산량(2,517천족)과 <표 3-7-1>에 기록된 생산량(2,516천족)이 상이하다. 그런데 합계는 모두 정합적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아 분석에서는 무시하였다.

7) 부산의 신발제조업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 해방이전부터 생산을 해온 기업, 적산기업, 그리고 해방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흥기업이다. 박영구,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pp.173-174 참조.

8) 이에 대해서는 장지용, 『경제개발정책 이전의 경제성장』, 도서출판 세화, 2007. pp.11-16. 참조.

치는 요소로 등장한 것과 원료의 해외 의존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김양화, 1986. p.60.)

<표 1> 한국 신발 산업 시기구분⁹⁾

	시기구분				
	개발기 : 1921-1955	성장기 1956-1972-	도약기 1973-1977	성숙기 1973-1985	발전기 1986 이후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생성기 1920-1955	도입기 1956-1972	성장기 1972-1976	정체기 1977-1981	재도약기 1981이후
김양화	일제강점기 1922-1945	해방 이후 1950년대: 1945-1961	1960년대 이후: 1962-		
김용문		독점산업으로 이행기: 1960년대초- 1970년대초	독점형성기: 1970년대초- 1976	독점정착기: 1977-1981	구조적 재편성기: 1981 이후

자료: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 pp.14-17.;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 1985. pp.7-8.; 김양화, 「부산의 산업에 관한 일 연구」, 『사대논문집』, 제12집, 1986. pp.44-71.; 김용문, 한국신발산업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p.7-8.

또 김용문은 신발산업에 있어서 1950년대는 중소신흥자본의 융성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경쟁의 격화, 그 결과로서 시장지배형 과점체계가 성립된 시기인 것에 비해 1960년대는 시장지배형 신발독점업체간의 상호경쟁이 격화되고 국제신발분업체계의 새로운 재편성에 조응해 대외지향적으로 축적양식이 변화된 시기로 보고 있다.(김용문, pp.7-8.)

본 연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 신발산업의 성장과정과 그

9) 김태선은 생성기(1920-1955), 도입기(1956-1972), 성장기(1973-1977), 정체기(1978-1984), 재편성 및 해외진출기(1985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김태선, 부산지역 신발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11-16.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1962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62년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김양화와 김용문의 시기구분을 따른 것이다.¹⁰⁾

Ⅲ. 한국 신발산업 성장과 부산

1. 한국 신발산업 성장과정과 특징

<그림 1>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의 변화 추이를 보인 것이다. 생산능력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1억 켤레로 일정하였다.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1975년의 정체를 예외로 하면 이후 1978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3억2천만켤레로 증가하였다. 반면 생산량의 경우는 1977년의 감소가 있긴 하였지만, 1970년부터 지속되어 온 증가세는 1978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생산능력의 변동 보다 큰 생산량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둔화는 2차 오일쇼크가 끝날 때 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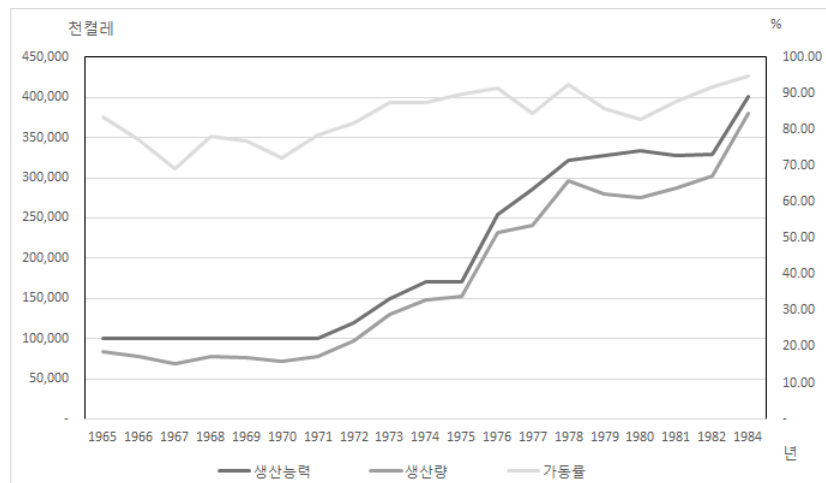
가동률 지표를 보면 1967년이 가장 낮은 69.2%를 보이고 있고 1970년 역시 72.3%로 낮다. 1967-1969년의 기간은 알려진 바와 같이 불황기이다.¹¹⁾ 그러나 그 이후는 생산능력이 급격히 증가함

10) 물론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신발 수출이 진행된 이후부터 신발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실태와 부산지역 기업의 구체적인 자료가 1973년, 1974년, 1977년 그리고 1978년 밖에 구할 수 없다. 또 신발산업의 쇠퇴가 진행되는 1978년 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 1978년 이후 부산신발산업에 관한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김태선의 석사학위 논문과 임정덕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임정덕, 『지역경제분석』의 제6장 한국의 신발산업과 제7장 부산의 신발산업을 참조. 임정덕, 『지역경제분석』,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pp.153-203.

11) 1968년과 1969년에 가동률이 다소 높은 것은 일본자본의 진출의 영향이 컸다.

과 동시에 가동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7년을 예외로 하면 1978년까지 지속되었다. 1978년 말부터 시작된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1979년과 1980년에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량과 가동률의 추이만 놓고 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신발산업은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였지만 지속적인 생산 능력의 확대와 생산의 증가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 신발산업의 생산능력과 생산량의 변화 추이
(단위: 천켄레)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 1985.
: 김양화 앞의 논문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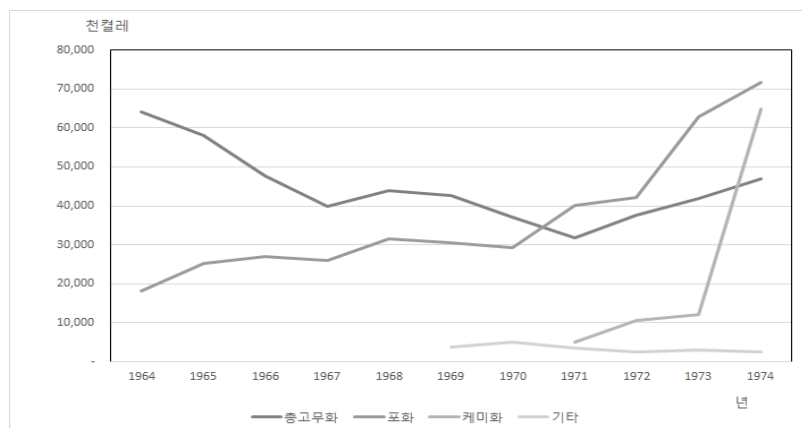
주: 1) 생산능력과 생산량은 좌측 종축을 기준이며, 가동률은 우측 종축을 기준임.
2) 가동률은 생산능력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임. 3) 1980년의 생산능력이 무역 협회자료에는 281,000으로 되어 있지만 추세로 보아 오기로 판단됨.
품목별 생산량의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고무신을 주

1968년 태화고무가 月星고무와 1969년에는 동양고무산업이 일본의 豊榮고무와 합작하여 풍영화성을 설립하였다. 김양화, 앞의 논문, pp.64-65.

중으로 한 총고무화의 생산은 1955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11.8%의 증가율을 보여 왔지만,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운동화, 농구화 등을 중심으로 한 포화는 1964년의 전체 생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71년 총고무화의 비중을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에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품목별 신발생산의 변화 추이

(단위 : 천켄레)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 보고서』, 1975. p.26.

1964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무려 31%p 증가한 것이다. 이는 등산화, 테니스화 등의 개발에 의한 것이었다. 1971년부터는 케미컬 슈즈(이하 케미화)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각종 스포츠용, 실내용, 아동용 신발 등으로 용도가 다양하게 개발되기 시작하였다.¹²⁾ 케미화의 비중은 1974년에 34.8%로 이미 총고무화의 비중

12)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보고

을 넘어서고 있고, 포화(38.5%)와의 비중차이도 불과 3.7%p에 불과하다. 1970년대 들어서 신발산업은 급격한 생산품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고무신을 중심으로 한 총고무화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신발을 패션의 일부로 생각하기 시작한 국내 수요패턴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뒤의 <그림 6>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수출 수요의 변화였다.

그런데 이러한 신발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생산품목 구성의 변화는 국내적 요인, 혹은 경기변동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요인은 국제적 요인, 특히 수출시장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3>은 우리나라 신발 산업의 수출 동향을 보인 것이다. 신발 수출이 최초로 진행된 것은 1962년이다. 미국 현지법인인 동양면화에 의해 총고무화 11만9천불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이다. 이후 1965년에는 4백만불을 수출하였고, 1966년부터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군납이 시작되었다.(한국신발수출조합, 앞의 책, p.15) 이후 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림 3>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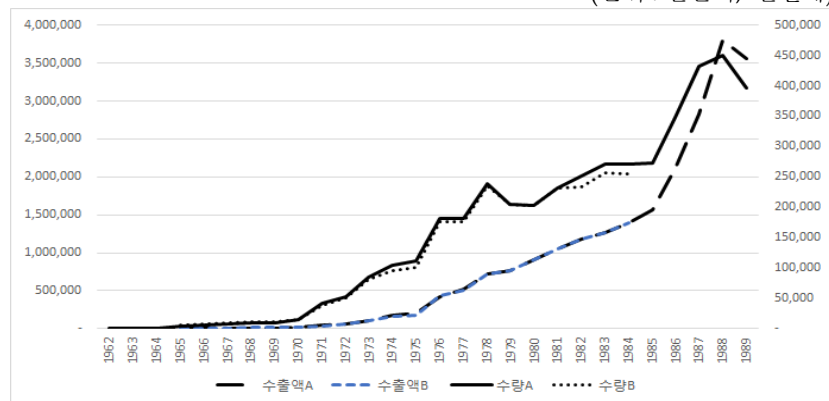
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1970년부터 급격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다소의 변동을 포함하지만 1978년까지 지속되었다. 1975년의 경우는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시장의 축소가 원인이며, 1977년에는 주요한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대한 비고무신류 신발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즉 1975년과 1977년을 예외로 한다면 1978년까지 한국의 신발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시기이며, 그 중요한 동인은 역시 수출

서』, 1975. pp.25-27. 그런데 생산의 경우는 세분화 되어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없다. 기본적인 분류는 총고무화와 포화이며, 포화에는 일반혁화, 혁제운동화, 실내화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었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능력이 증가된 것이었고, 국내수요를 넘어서는 수출시장의 확대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신발산업 성장의 동인이었다. 또 앞의 <그림1>의 변동과 <그림 3>의 변동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출시장의 변동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성장과 변동을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¹³⁾

<그림 3> 우리나라 신발 수출 추이

(단위 : 천달러, 천켤레)



자료 :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 1985.

주: 1) 수출액A와 수량A는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1990.02)의 자료이며, 수출액B와 수량B는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1985)자료임.

2) 수출액은 좌측 종축을 기준이며, 수량은 우측 종축을 기준임.

이는 내수와 수출의 비중변화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13) 물론 여기에는 국내수요의 변화, 국내자본의 동향, 특히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한 독점적 신발자본의 등장, 수출조합의 역할, 정부정책과 환율의 변화 등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시장의 변동이었다. 국내자본의 동향에 관해서는 김양화, 앞의 논문, p.60-66,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은 김용문 앞의 논문, p.28-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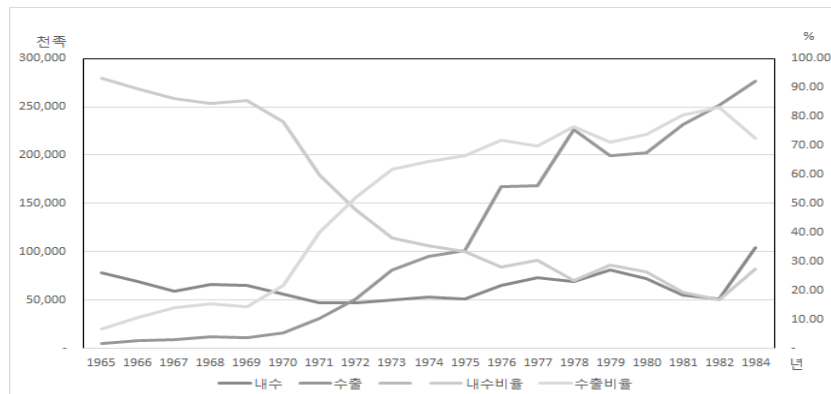
있다. <그림 4>은 신발산업의 수출과 내수 비중의 추이 변화를 보인 것이다. 1965년에 내수 비중이 93.3%로 아직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69년을 기점으로 수출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72년부터는 수출 비중이 내수비중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82년에 이르기 까지 수출의 비중은 경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내수의 비중은 경향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82년 수출의 비중은 무려 83.2%에 이르고 있다.

변화의 경향을 보면 1971년까지는 내수의 감소를 동반한 수출의 증가였다고 할 수 있는 반면, 1979년까지는 내수의 증가가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앞선 신발 생산 품목의 변화와 관련하여 국내수요의 변화는 이러한 의미에서는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수출의 증대가 신발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임과 동시에 수출시장의 변동이 그대로 신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발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지역 산업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신발산업 뿐만 아니라 부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봉제, 합판 산업이 모두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부문이었다.

이 때문에 부산의 수출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965년 부산지역총생산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17.9%에 불과하였지만 1970년에는 31.2%, 1972년에는 60.7%로 크게 증가하였고, 1974년 이후에는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전국은 1975년도에 28.5%에 불과하였다. 바로 이 때문에 수출시장의 변동은 부산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섬유공업, 목재, 신발공업이 차례로 붕괴되는 것이 부산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사』, 1989, pp.937-938.)

<그림 4> 신발산업의 수출과 내수의 추이 변화

(단위 : 천켄레, %)



자료 : 앞의 <그림 3>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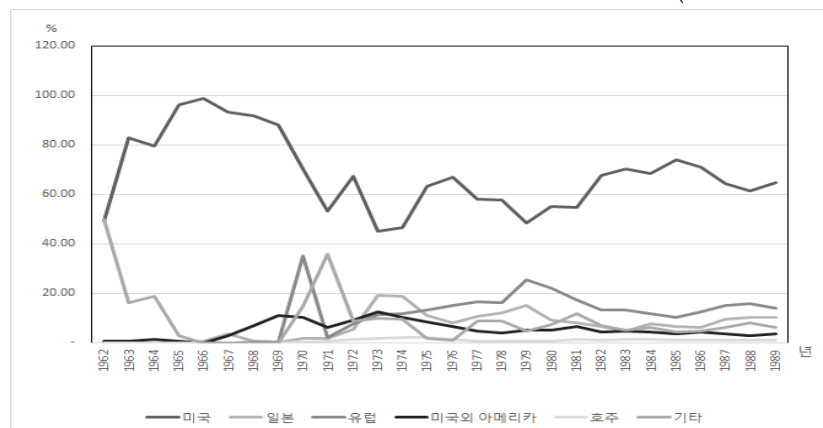
- 주: 1) 무역협회자료에는 1973년 내수생산이 49,393켄레로 그리고 1980년 내수생산은 63,082켄레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님.
- 2) 무역협회자료에 1976년 내수생산이 68,245켄레로 되어 있지만 명백한 오기이며, 65,245켄레로 바로 잡음.
- 3) 내수와 수출은 좌측 종축을 기준으로 하고, 내수비율과 수출비율은 우측 종축을 기준으로 함.

특히 수출시장의 편중현상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림 5>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신발수출국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정점이었던 1966년에는 무려 98.9%에 달하고 있다. 이후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줄곧 60% 전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는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와 미국의 CITC사와 같은 국제신발상인자본의 한국의 신발수출을 지배하였다. CITC사는 미국내 신발류 시장망을 장악하고 있었고, 미쓰비시는 CITC사의 금융을 지원하고 있었다. 1960년대 들

어서 일본의 임금상승과 엔화절상으로 인해 수입선을 우리나라로 변경한 것이며, 때문에 해외판매상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개발하고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의 수주 의존형 생산체계가 형성되었다.(김용문, 앞의 논문, p.25-27)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그림 5> 수출국별 신발 수출의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

- 주: 1) 1970년은 국별 품목별 수출금액의 합계를 고려하여 수출실적 20천불로 수정함.
2) 1974년의 국별 수출금액도 제시된 합계와 세부 합계의 결과에 450천불의 차이가 있음. 품목별 합계와 제시된 국별 수출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한 국가 이상에서 오기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1973-79년간에는 유럽과 일본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일본의 경우는 1979년을 제외하면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유럽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시장 다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편중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1979년을 저점으로 미국시장의 비중이 다시 상

증하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의 신발산업은 수출시장의 성장과 변동, 특히 미국 시장의 성장과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상품종류별 신발수출의 추이를 보면 한국 신발산업의 변화과정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 총고무화의 경우 1964년 77.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66년의 급격한 비중의 하락은 일반혁화의 급격한 비중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화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역시 베트남 전쟁이 막바지였던 1974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포화의 경우 1974년을 정점으로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혁제운동화의 경우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79년을 예외로 하면 1976년 이후 혁제운동화의 비중은 포화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가장 대표적인 수폴상품이 되었다. 이는 나일론트랙슈즈(Nylon Track shoes), 일명 조강화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다. 197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케미컬화의 하나인 조강화는 1974년 8월 나이키(NIKE)가 한국에 진출해 삼화와 첫 거래를 하면서 생산과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이 때문에 1974년부터 혁제운동화의 수출비중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역으로 Non-Brand 제품을 주로 취급하였던 CITC의 쇠퇴¹⁴⁾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 그리고 나이키, 리복(Reebok)¹⁵⁾ 등의 국제적 신발브랜드의 성장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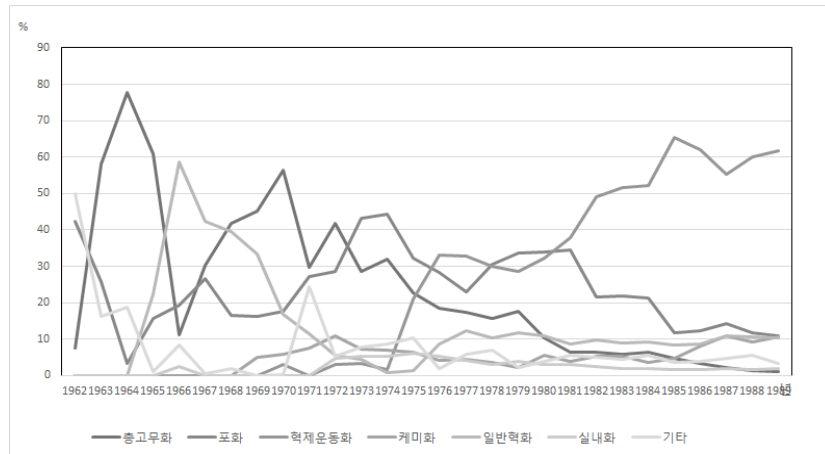
14)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중소수입상 및 생산업자들이 CITC를 통하지 않고 한국의 수출업체와 직거래하는 경향이 대두된 것이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김용문, 앞의 논문, p.35-36.

15) 리복은 에어로빅 붐을 타고 급격히 성장한 기업이다. 분석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1986년 리복이 한국에서 수주해간 신발은 전체의 22.7%에 달한다. 김용문, 앞의 논문, p.49-50.

된 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 국제적 신발자본의 세대교체는 향후 한국, 특히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¹⁶⁾

<그림 6> 상품종류별 신발수출의 추이

(단위 : 천달러)



- 16) 김용문은 소위 5대 신발 독점체의 수출비중이 1976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쇠퇴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상사의 급격한 수출 감소의 기본적인 원인이 CITC의 쇠퇴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문, 앞의 논문, p.39-37.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국제상사의 상위 5개사 수출실적의 변동이다. 그런데 한국신발수출조합의 『한국신발수출통계』의 업체별 수출실적을 금액별로 합산해 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다. 1966-1969년간에는 상위 10개사(국제상사, 태화고무, 삼화고무, 진양고무, 동양고무, 보생고무, 경성고무, 대양고무, 조일공업, 풍영화성)의 수출금액을 더하면 전체 수출액 보다 많다. 심지어 1966과 1967년은 상위 5개사(국제상사, 태화고무, 삼화고무, 진양고무, 동양고무)의 수출금액의 합이 제시된 전체 수출금액 보다 많다. 따라서 자료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또 김용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977년부터 국제상사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 1969년까지는 수출비중이 하락하였고, 이후는 40% 전후로 변동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1984년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비중하락이 진행되었다. 상위 5개사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은 1976년이 맞다. 따라서 논의를 1970년대 중후반으로 한정하고, CITC의 쇠퇴, 그리고 브랜드 신발메이커의 등장과 관련된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CITC사의 쇠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 앞의 <표 4>와 같음.

주: 1978년의 수량의 품목별 합계를 구해 보면 국가별 수출량과 364천족의 차이가 발생하고, 1979년의 수량 역시 국가별 합계에 비해 45천족 적다. 1985년은 국가별 수출총액에 비해 2,000천불이 적고, 1987년에는 10,000천불 적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그대로 둠.

따라서 1970년대 들어서 생산 품목의 급격한 변화, 수출의 급격한 성장은 내부적인 기술개발과 신제품의 개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신발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주로 미국의 다국적 신발기업의 이해와 요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성장의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독자적인 성장토대를 만들어 갔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이는 이후 신발산업의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2. 주요 신발 생산업체의 변화와 부산

1) 생산과 수출의 변화 분석

신발산업의 성장기에 우리나라 주요 신발 생산업체의 대부분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었다. 상위 10개 업체는 국제상사, 태화고무, 삼화고무, 진양고무, 동양고무, 보생고무, 경성고무, 대양고무, 조일공업, 풍영화성이다. 이중, 조일공업은 서울에, 경성고무공업사는 군산에 있었고 나머지 업체는 모두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표 2>은 상위 10개 기업의 1970년대 초 생산과 수출의 추이를 보인 것이다.¹⁷⁾ 먼저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10개 업체의

생산량이 전체의 생산량과 동일하다.¹⁸⁾ 1971년에는 삼화고무가 전체 생산의 21.4%, 그리고 태화고무가 19.9%, 국제화학이 18.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변화의 경향을 보면 국제화학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여 1974년에는 24.5%에 이르고 있다. 반면 태화고무는 1973년에 비중이 다소 회복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소의 경향을 보여 1974년에는 17.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삼화고무의 경우는 1973년까지는 비중이 감소하였다가 1974년에 다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동양고무의 경우는 1972년을 정점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1974년에는 12.6%이다. 대양산업과 조일공업, 풍영화성의 비중은 2%미만으로 미미하며, 보생고무와 경성고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즉 1970년대 초에 이미 5개 업체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과정이었고, 국제화학의 성장과 나머지 4개 업체의 비중 약화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삼화고무가 1974년부터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NIKE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기업의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71년에는 대양산업, 보생고무, 동양고무는 주로 내수에 치중하고 있었

17) 1970년대 후반 각 기업별 자료를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논의를 1970년대초로 한정한다.

18) 이는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다소 의심스럽다. 그런데 1972년 부산상공명감을 보면 고무화 제조사가 모두 16개사가 있었다. 그런데 상기의 기업을 제외하면 종업원의 규모가 지극히 영세하다. 개동화학공업사(대표 김영정)이 17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어 가장 크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하청·계열화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상위 10개 회사에 납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1962년 상공명감에 대원고무공업합자회사가 '체건'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만 이후 1969년 상공명감, 1972년 상공명감에서 찾을 수 없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감』, 1962, pp. 153-157, 『부산상공명감』, 1969, pp.77-76, 『부산상공명감』, 1972, p.58.

다. 이후 점차 수출의 비중을 동양, 동양산업은 내수 위주에서 점차 수출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 동양고무의 경우는 비교적 완만하게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보성과 경성고무는 1972년부터, 대양산업의 경우는 1973년부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조일공업과 풍영화성은 처음에는 수출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았지만, 이후 수출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상위 4개 업체의 경우는 변화경향이 다소 상이한데, 국제화학의 경우는 1973년 수출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태화고무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진양의 경우는 오히려 1973년을 정점으로 수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삼화고무의 경우는 197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던 수출의 비중이 1974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NIKE와의 관계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 판단된다.

신발수출에서 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국제화학이 1971년 32.0%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삼화고무(21.0%), 태화고무(19.2%), 진양고무(16.7%)의 비중이 높다. 1971년 이들 4개 업체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8.9%였다. 이후 이들 4개업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향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3년이 가장 낮은 77.8%였고, 삼화의 수출이 회복되는 1974년에는 다소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81.2%였지만, 1971년 보다 낮다. 이는 앞선 지적과 마찬가지로 내수에 치중한 기업들이 수출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경향은 다소 상이하다. 국제화학의 경우는 1973년 다소 비중이 하락하지만 1974년에 다시 증가하여 37.2%에 이르고 있다. 태화의 경우는 1974년 수출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 1970년대 초 주요 신발생산 기업의 생산과 수출의 추이

(단위: 천 켤레)

	1971				1972			
	생산량	수요			생산량	수요		
		국내공급	수출	계		국내공급	수출	계
국제화화	14,546	5,206	9,527	14,733	19,179	4,842	14,418	19,260
태화고무	16,013	10,920	5,712	16,632	17,099	10,282	6,545	16,827
삼화고무	17,224	10,094	6,259	16,353	17,719	10,465	9,154	19,619
진양고무	6,475	1,096	4,968	6,064	8,055	2,436	6,148	8,584
동양고무	11,455	10,100	1,016	11,116	14,319	12,625	1,694	14,319
보생고무	6,487	6,446	32	6,478	6,648	4,465	930	5,395
경성고무	5,319	4,530	789	5,319	5,860	4,108	1,752	5,860
대양산업	1,452	1,452		1,452	1,193	1,193		1,193
조일공업	1,202		1,088	1,088	2,156		1,934	1,934
풍영화성	477	57	395	452	829	116	723	839
계	80,650	49,901	29,786	79,687	93,057	50,532	43,298	93,830

	1973				1974			
	생산량	수요			생산량	수요		
		국내공급	수출	계		국내공급	수출	계
국제화화	29,249	7,539	19,890	27,429	33,384	2,603	31,301	33,904
태화고무	22,961	12,046	11,095	23,141	23,315	13,034	10,963	23,997
삼화고무	22,465	14,443	8,564	23,007	26,445	9,726	14,548	24,274
진양고무	10,784	3,384	10,496	13,880	17,153	5,478	11,497	16,975
동양고무	15,709	11,717	4,492	16,209	16,060	11,552	4,508	16,060
보생고무	8,827	4,630	3,824	8,454	10,207	3,929	4,598	8,527
경성고무	4,960	2,485	2,475	4,960	4,582	1,543	3,039	4,582
대양산업	1,304	1,247	57	1,304	1,478	509	969	1,478
조일공업	2,401		2,269	2,269	2,627		2,131	2,131
풍영화성	1,331	107	1,194	1,301	1,011	299	619	918
계	119,991	57,598	64,356	121,954	136,262	48,673	84,173	132,846

자료: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 보고서』, 1975. pp.29-30.

진양의 경우는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은 1974년 감소하고 있다. 이 역시 삼화고무가 1973년에는 수출량이 줄었지만

1974년부터 급격하게 수출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 주요업체의 수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다국적 신발기업인 NIKE의 등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노동력 구성의 변화 분석

1974년 말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종사자 총수는 47,638명이었고, 이중 95.5%인 45,497명은 생산직이었다.(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앞의 책, pp.128-129.) 1975년 8월 말 현재 부산신발제조업체의 전체 종업원은 49,251명이었고, 3.7%인 1,796명은 사무직이었고, 96.4%인 47,455명은 생산직이었다. 생산직 중 51.7%는 국졸이었고, 39.8%는 중졸이었다. 고졸은 4.6%인 2,259명에 불과하였다. 사무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하지만 생산직의 60.4%는 여성이었다. 따라서 저학력의 여성노동자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3> 부산지역 신발생산업체 종사자의 구성 - 1975년 8월말 현재
(단위: 명)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	국졸	합계
사무부문	남	475	34	979	25	1	1,514
	여	1		269	12		282
생산부문	남	130	25	1,567	7,707	9,368	18,797
	여			692	11,858	16,108	28,658

자료: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 보고서』, 1975. pp.130.

1970년대 후반의 경우는 성별 구성을 알 수 없지만¹⁹⁾ 비교적

자세한 종사자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노동자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하고 있다. 1976년 63,363명이었던 종사자가 1978년에는 77,70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증가율을 구하면 초기값이 적은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대기업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다.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의 종사자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낮고,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대기업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반면 중소기업은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이 낮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졸과 전문대졸의 경우는 1976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다소 있었지만 1978년에는 적어도 비중으로 비교한다면 차이가 거의 없다. 학력 수준으로 보면 중졸이하의 비중이 1978년에 84.0%로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교육수준은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학력이 저하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부산은행, 앞의 책, p.46.)

직능별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사무판매직의 증가율은 아주 높다. 이는 당시 10개 업체가 신설되었고, 상대적으로 소수인원의 증가가 있었던 사무판매직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부산은행, 앞의 책, p.44.)

19) 전체적인 구성은 알 수 있다. 1978년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의 비중이 36.2%이었고, 여자의 비중은 63.8%였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여자노동자의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0.1%p 적었다.(부산은행, 앞의 책, p.50.) 일반적으로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여성노동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신발제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1975년의 58.8%보다 더 증가하였고, 절대적인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말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감소는 적어도 신발부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 여성노동자의 변화에 관해서는 장지용, 「부산지역 여성노동의 부문별 변화과정과 특질 :1945-2009」, 『부산학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2, pp.16-21.참조.

<표 4>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신발생산업체 종사자의 구성
(단위: 명)

		학력별 노동자 구성의 추이					
		대졸	전문대졸	고졸	중졸이하	합계	
1976	대기업	771	154	7,685	51,721	60,331	
	중소기업	28	7	421	2,576	3,032	
	합계	799	161	8,106	54,297	63,363	
1977	대기업	890	217	8,814	56,078	65,999	
	중소기업	53	24	832	4,336	5,245	
	합계	943	241	9,646	60,414	71,244	
1978	대기업	941	266	9,821	59,232	70,260	
	중소기업	94	20	1,297	6,034	7,445	
	합계	1,035	286	11,118	65,266	77,705	
직능별 노동자 구성과 추이							
		사무직	생산직				기타
			관리직	숙련공	비숙련공	계	
1976	대기업	2,574	817	44,063	11,852	56,732	1,025
	중소기업	136	113	1,915	812	2,840	56
	합계	2,710	930	45,978	12,664	59,572	1,081
1977	대기업	2,709	916	46,641	14,546	62,103	1,187
	중소기업	237	188	3,408	1,308	4,904	104
	합계	2,946	1,104	50,049	15,854	67,007	1,291
1978	대기업	2,961	1,015	48,365	16,680	66,060	1,239
	중소기업	378	259	4,939	1,732	6,930	137
	합계	3,339	1,274	53,304	18,412	72,990	1,376

자료: 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979, pp.158-159.

생산직을 보면 1977년에는 전년 말에 비해 숙련공의 증가율(8.9%)보다는 관리직의 증가율(12.1%)이 더 높고, 특히 비숙련공의 증가율은 무려 25.2%에 이르고 있다. 1978년 역시 비숙련공의 증가율(16.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리직(15.4%), 그리고 숙련공의 증가율은 6.5%였다. 그 결과 비중의 추이를 보면 1977

년에 비해 숙련공이 1.7% 감소한 반면 관리직(0.1%)과 비숙련공(1.6%)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면 중소기업의 숙련공 증가율이 높는데 이는 신설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나은 임금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신발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97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였다.(뒤의 <부표 5> 참조) 그런데 1977년까지는 대기업의 숙련공 월평균 임금이 더 높았지만 1978년 중소기업의 숙련공 월평균임금은 62,492원으로 대기업의 61,524원 보다 높았다.²⁰⁾ 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발 생산노동자들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78년 대기업의 숙련공 증가율은 3.7%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종업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부족 현상은 계속되었다. 1978년 말 현재 8,936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기업이 7,511명이었고,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1,425명이었다. 이를 현재 고용인원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부족률이 대기업은 10.7%, 중소기업은 19.1%에 이르고 있다. 원인으로서는 저임금, 복지후생시설의 미흡,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교섭, 주거지역 인접지역으로의 시설이전, 시설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의 자본으로의 대체 등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8개 대기업간의 노무자 이동방지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그런데 노무자 이동방지협약은 오히려 대기업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의 유출과 타 산업으로의 이직을 촉진시켰다.(부산은행, 앞의 책, pp.46-47.)

20) 비숙련공의 경우, 조사 전 기간에 걸쳐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월평균임금이 높았다. 뒤의 <부표 5> 참조. 부산은행, 앞의 책, pp.54-55.

이러한 임금의 증가와 동반된 노동력의 부족현상, 그리고 기술 인력의 부족과 종업원 교육수준의 저위성은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3)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주요 경영지표 분석

1970년대 전반과 1970년대 후반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에 대한 비교분석을 행할 수 있다.²¹⁾ 구체적으로 1973년과 1974년, 그리고 1977년과 1978년의 자료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두 시기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1973년 하반기부터 오일쇼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74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2%로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상태도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앞의 책, p.79.) 반면 2차 오일쇼크는 1978년 12월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981년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1973-1974년 오일쇼크의 중심에 있었던 해이고 1977년과 1978년은 아직 본격적인 2차 오일쇼크 이전의 시기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양 시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발제조업의 자산구성의 변화부터 살펴보자. <표 5>에서 가장 먼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의 변화이다. 자기자본비율이 1973년에는 35.1%였지만 1974년에는 35.8%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77년에는 불과 19.9%에 불과하고, 그마저 1978년

21) 주요경영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관계지표, 활동성관계지표, 수익성관계지표, 생산성관계지표등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1975년 자료와 1979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유동성과 생산성관련 지표가 서로 비교하기 다소 어렵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수익성관련지표 활동성관련지표, 그리고 재무관련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생산관련은 앞에서 분석한 생산과 수출로 대체하며, 유동성관련은 재무관련 지표로 대체하여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자세한 언급을 한다.

에는 17.1%로 떨어지고 있다. 1974년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었던 반면 1970년대 후반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4년의 부채비율은 179.8%로 높지만 전국 부채비율인 262.3%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1978년의 부채비율은 무려 485%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1973년에서 1974년의 변화를 보면 부채 중 유동부채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고정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고정부채의 비중도 낮을수록 좋겠지만, 대개 장기부채이며, 고정자산의 비중 증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투자로 인한 부채이므로 이 비중이 증가한 것은 투자의 증가로 해석된다.²²⁾ 반면 1977년과 1978년을 보면 고정자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정부채의 비중은 그대로인 것에 비해 유동 부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0.9% 떨어지고 있다. 반면 단기차입금은 34.1%에서 37.4%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시설의 증설이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거의 단기부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70년대 초에는 세계적인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유지한 반면, 1970년대 후반에는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었다.

22) 이러한 투자의 증대가 과연 효율적인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1960년대 말에 이미 섬유산업에서는 정태적 비교우위론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물론 1960년대 말까지 목재와 신발은 절대적인 경쟁력 위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태적 비교우위에 함몰되어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선택이 지속되었다. 박영구, 앞의 책, pp259-260. 참조.

<표 5>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대차대조표 구성비

(단위 : %)

		1973	1974	1977	1978
자산	유동자산	59.4	56.9	63.8	65.1
	고정자산	39.6	41.9	35.2	33.9
	이정계정	1.0	1.2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부채 및 자본	부채	유동부채	47.2	67.7	70.5
		고정부채	14.9	12.4	12.4
		계	64.9	80.1	82.9
	자기자본		35.1	19.9	17.1
	계		100.0	100.0	100.0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 보고서』, 1975. pp.148-149와 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경영실태 조사보고』, 1979, p.104에서 작성.

특히 1978년의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흑한과 레저 붐에 의해 신발의 해외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연평균 30%의 수출가격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무상태가 부실화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임금의 상승이외에 자원민족주의에 의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 신발제조업체들이 신발이외의 방계회사를 설립하면서 외형의 확대를 통해 신흥재벌로 변모하고 있었다는 점도 원인의 하나이다.²³⁾ 이는 경영지표상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

23) 국제화학, 진양화학, 태화고무 등은 1977년경에, 동양고무는 이보다 늦은 1981년 경에 재벌을 형성한다. 삼화고무는 한국생사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 풍영화성, 풍국화학, 신흥화학, 진일고무, 호남고무산업은 각각 동양고무산업, 국제상사, 태화고무, 진양화학, 삼화고무 등이 일본자본과의 합작회사 또는 방계회사이다. 따라서 1970년대 말 이미 5대업체가 재벌로 전환하고 있었고, 이들이 생산총액에서

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산의 신발제조업체가 그 발전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않고 저임금형의 국제화청구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며, 소위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혼합결합이 진행되면서 신발공업을 그냥 저임금형 가공단계로 내버려둔 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영구, 앞의 책, pp.272-273.)

이러한 재무구조의 변화는 그대로 수익성 지표에서 확인된다. <표 6>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수익성지표인 총자본이익률이 1970년대 전반에는 상승하였고, 1974년에는 8.14%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1977년에는 총자본이익률이 불과 2.26%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1978년에는 1.85%로 떨어지고 있다. 외형적인 팽창은 진행되었지만 자본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자본이익률도 마찬가지이다. 역으로 판단하면 1970년대 전반에는 전형적인 저임금에 기반하여 높은 이익률을 보인 반면, 1970년대 후반 임금과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²⁴⁾ 매출액과 순이익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출 순이익률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출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평균(5.92%, 10.59%)보단 높았지만 197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 80%에 이르고 있다. 이 이외의 보생산업, 대양산업(부산), 조일공업이 각각 2-3%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양화, 앞의 논문, pp.65-66. 참조.

- 24) 실제로 1970년대 초 한국의 신발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가장 임금이 낮은 브라질도 우리나라 임금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신발산업의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도 여전히 낮은 저임금에 기초해 있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변화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신발제조업의 임금상승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보면 가죽신발제조업은 26.1%, 고무신발제조업은 22.2%에 이르고 있다. <부표 6>참조, 박영구, 앞의 책, p.298-230.

<표 6>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의 수익성과 활동성 지표 추이

(단위 : %, 회)

		1973	1974	1977	1978
수익성지표 (%)	총자본이익률	6.26	8.14	2.26	1.85
	자기자본이익률	17.81	22.77	11.35	10.81
	매출영업이익률	17.76	18.99	6.70	6.10
	매출순이익률	6.78	6.14	1.50	1.20
활동성지표 (회)	총자본회전율	0.92	1.33	1.52	1.54
	자기자본회전율	2.63	3.72	7.67	9.01
	고정자산회전율	2.33	3.17	4.33	4.54
	재고자산회전율	3.07	3.82	4.18	5.43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앞의 책, p.90, p.94, 부산은행, 앞의 책, p. 114, p.117에서 작성.

주 : 1) 부산은행의 자료에는 총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앞에 제시된 산식은 1975년 자료와 동일함. 2) 총자본수익률=당기순이익/총자본*100. 3)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4) 매출영업이익률=영업이익/순매출액*100. 5)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매출액*100. 6) 총자본회전율=순매출액/총자본. 7) 자기자본회전율=순매출액/자기자본. 8) 고정자산회전율=순매출액/고정자본. 9) 재고자산회전율=순매출액/재고자산.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앞선 지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자본회전율을 비롯한 모든 지표가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1978년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은 것은 자기자본 증가율이 25.0% 증가한 반면, 매출액의 증가율이 46.9%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고정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인데 고정자산의 증가율이 40.1%로 매출액증가율 보다 낮았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국내외 수요의 증가에 의해 재고자산의 비중이 전년도 31.7%에서 28.2%로 줄었기 때문이다. 즉 외형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이 훨씬 활발한 생산과 매출증대가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업경영 관련 지표를 종합해 보면, 1970년대 후반 신발업계는 해외시장의 확대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지만 장기적이고 동태적 관점에서 선택보다는 정태적인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있었고,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²⁵⁾

IV. 결론

2011년 기준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32곳과 5,760명으로, 전국 대비 각각 44.3%, 46.5%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신발산업 총매출은 2조2144억이며 이중 부산의 매출액이 7966억 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 부산지역 신발 관련 수출액은 2억7200만 달러로, 전국의 58%를 담당하고 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신발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성기였던 1970년대 말, 혹은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1986년은 물론에 비하면 상당히 위축된 것이다. 물론 현재를 이전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충분한 기술력과 특화된 상품, 고유의 브랜드,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표현해도 될 만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은 그동안 혁신

25) 임금의 상승에 대한 자본의 가장 전형적인 대응 방법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이는 투자를 통한 생산설비의 자동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부산의 신발제조업은 생산설비의 확충보다는 노후설비의 개보수에 치중하였다. 실제로 1978년 설비투자내용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노후설비의 개보수가 52.2%를 차지하고 있고, 기존설비확장이 20.0%이다. 부산은행, 앞의 책, p.61.

의 노력을 해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모습은 또 다른 침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의 521개사의 16,204명의 종업원에 비하면 2011년의 수치는 초라해 보인다.

본 논문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성장기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신발산업의 성장은 수출에 힘입어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잘못된 선택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택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국 부산의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신발산업의 침체와 붕괴로 이어졌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은 제도약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치밀한 준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대래, 『부산의 기업과 경제』, 도설출판 세화, 2013.
- 김양화, 「부산의 산업에 관한 일 연구」, 『사대논문집』 제12집, 1986. pp.37-73.
- 김용문, 「한국신발산업의 성격에 대한 일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태선, 「부산지역 신발산업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박영구,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5.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기업사』, 2004.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사』, 1989.

- -----, 『부산상공명감』, 1962, 1969, 1972, 1975. 1975.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및 고무제품제조업 경영실태보고서』, 1975.
- 부산시직할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2권, 1990.
- 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류 수출업체 경영실태조사보고』, 1983.
- 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979.
- 임정덕, 『부산경제론』, 부산발전연구원, 1994,
- -----, 『지역경제분석』,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 장지용, 「부산지역 여성노동의 부문별 변화과정과 특징: 1945-2009」, 『부산학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12,
- -----, 『경제개발정책 이전의 경제성장』, 도서출판 세화, 2007.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 1985.
- 한국신발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02(신발 2월호 별책)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신발류 제조업체 실태조사보고서』, 1987.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kr/>

투 고	심 사	완 료
2014.10.31	2014.12.5	2014.12.12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신발산업의 성장기(1962-1978년)를 고찰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발한 본 논문의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 신발산업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를 성장동력으로 1978년까지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러한 수출의 증대는 신발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임과 동시에 수출시장의 변동이 그대로 신발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 생산 품목의 급격한 변화, 수출의 급격한 성장은 내부적인 기술개발과 신제품의 개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국내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주로 미국의 다국적 신발기업의 이해와 요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즉 성장의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이며 독자적인 성장토대를 만들어 갔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이는 이후 신발산업의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둘째, 기업경영 분석의 결과 1970년대 후반 신발업계는 해외시장의 확대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었지만 장기적이고 동태적 관점에서의 선택보다는 정태적인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있었고,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부산, 신발산업, 수출, 종사자, 경영지표분석

【Abstract】

**A Study on the Growing Process of Footwear Industry
in Busan the 1960·70s**

Jang, Ji-yong / Busan National Univ.

This study analysis footwear Industry in Busan, particularly during growth period (1962–1978). The result, which started as to improve the statistics needed for analysi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Busan on the shoe industry grew greatly as sharp increase of exports growth engine until 1978. Such an increase in exports made the structure that export market fluctuations in off the shoe industry can affect domestic shoes industry. The sudden changes or rapid growth of exports was not the result by internal technology development but rather than by an external factor. This means that in the process of growth, continuous and permanent independent growth foundation did not made. This structure became a direct cause of the recession of the shoes industry.

Second, corporate management analysis of the late 1970s, shoes business grew greatly by external factors. But the choices was not long-term dynamic view, and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oundness changed for the worse.

Key words : Busan, Footwear Industry, Export, Employee,
Management Index Analysis

<부표 1> 국별 신발 수출 추이 - 금액기준

(단위 : 천달러)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핀란드	벨기에	파나마	덴마크	노르웨이	기타	계
1962	117		2													119	238
1963	612		6													120	738
1964	698		14													166	878
1965	3,999		24													128	4,151
1966	5,403	39	2	20													5,464
1967	7,600	290	250														8,140
1968	10,151	83	788	24		1											11,047
1969	9,221	39	1,180	36													10,476
1970	12,624	317	1,823	72	74	5,857	233	20	26	67	2			17		2,637	17,912
1971	26,899	908	3,141	166	338		87	32	214	371			96	27	114	18,098	50,491
1972	42,083	3,489	5,563	917	715	27	726	193	838	841	21	397	108	1,019		5,549	62,486
1973	49,594	20,991	13,378	2,119	2,073	352	4,415	674	954	1,947	23	87	252	2,057	3	11,059	109,978
1974	85,192	34,609	18,961	3,228	4,079	1,265	7,061	1,132	1,704	4,171	64	611	285	2,688	30	17,613	182,693
1975	126,337	21,835	16,230	4,250	5,425	1,189	7,455	2,468	2,727	4,704	246	812	607	1,624	305	3,922	200,136
1976	280,313	34,622	26,805	11,888	11,289	2,487	12,529	7,534	6,052	5,968	1,112	2,560	1,298	4,566	3,154	5,260	417,437
1977	300,239	55,992	23,450	15,001	15,364	4,204	18,287	12,012	9,116	4,257	2,575	1,558	1,258	3,079	3,775	45,113	515,280
1978	419,943	88,869	26,500	21,379	13,364	5,910	39,081	16,251	9,941	5,751	1,509	3,375	3,381	4,441	2,604	63,929	726,228
1979	372,505	116,493	31,946	38,577	32,479	10,912	48,209	26,840	17,673	5,865	3,805	4,353	7,720	8,094	4,182	35,708	765,361
1980	497,485	83,375	37,974	45,128	36,731	20,079	37,560	22,493	15,354	6,808	6,240	4,690	10,087	7,539	5,176	67,481	904,200
1981	575,216	86,146	52,872	32,530	17,554	17,115	52,535	13,857	18,553	13,538	8,717	4,392	17,615	8,493	7,082	123,108	1,049,323
1982	799,883	77,787	34,136	29,032	11,870	22,175	33,480	13,309	20,590	13,715	9,037	2,623	18,740	5,749	8,133	81,500	1,181,759
1983	895,428	59,839	52,164	25,202	16,249	43,027	34,460	13,781	13,578	18,963	8,104	2,309	8,256	3,775	8,897	65,667	1,269,699
1984	955,438	107,464	55,569	25,628	16,603	26,893	35,549	13,914	16,073	19,097	11,067	2,690	8,819	4,283	11,736	87,586	1,398,409
1985	1,161,396	102,840	47,834	23,528	18,297	36,853	30,475	14,150	15,091	16,496	8,902	1,977	7,588	4,812	9,765	72,217	1,571,221
1986	1,502,028	132,191	79,402	45,630	36,342	53,294	39,835	28,077	19,063	21,444	15,848	4,395	11,009	7,947	13,804	98,992	2,109,301
1987	1,814,889	270,702	90,642	95,363	66,842	61,877	61,216	40,275	30,388	26,329	22,421	19,444	17,371	15,484	14,390	176,568	2,824,201
1988	2,329,050	398,075	91,887	117,648	107,041	79,954	83,515	68,927	42,953	42,412	29,694	35,636	19,611	22,894	19,433	311,929	3,800,659
1989	2,303,688	368,490	105,430	86,297	109,394	73,878	80,480	59,699	33,562	34,375	15,775	10,887	24,925	17,677	13,174	222,269	3,560,000

자료 :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

<부표 2> 국별 신발 수출 추이-수량기준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핀란드	벨기에	파나마	덴마크	노르웨이	기타	계	(단위 : 천 켤레)
1962	315		5													321	641	
1963	762		10													372	1,144	
1964	753		19													180	952	
1965	4,576		28													145	4,749	
1966	5,280	30	1	30													5,341	
1967	6,671	170	207														7,048	
1968	8,010	65	1,113	32													9,220	
1969	7,129	54	1,621	81													8,885	
1970	10,632	426	2,574	90	65		221	7	10	67	1			8		735	14,836	
1971	23,385	1,087	3,243	196	234		46	14	125	365			79	24	62	12,678	41,538	
1972	34,297	4,110	5,600	1,230	545	26	921	122	612	929	9	544	108	855		3,453	53,361	
1973	35,692	20,262	10,345	1,354	1,125	240	4,146	464	677	1,856	12	62	199	1,533	2	7,634	85,603	
1974	42,804	24,030	12,010	1,680	2,039	649	4,362	1,084	725	2,624	23	268	180	1,410	11	10,096	103,995	
1975	53,576	16,620	10,064	2,709	3,001	604	5,283	1,580	1,203	3,535	88	550	439	800	139	11,698	111,889	
1976	92,949	22,267	13,643	6,463	5,138	999	7,128	4,033	2,063	4,080	294	1,559	697	2,005	1,144	16,999	181,461	
1977	89,601	31,966	9,123	7,172	5,857	1,574	10,440	4,470	2,690	2,531	654	813	523	1,210	1,079	12,125	181,828	
1978	108,654	46,856	10,740	8,599	4,277	1,934	16,427	3,592	2,593	2,699	500	1,478	1,184	1,505	628	26,574	238,240	
1979	78,726	48,397	9,477	11,725	8,493	3,520	14,312	7,172	4,220	2,622	996	1,580	1,934	2,379	832	8,750	205,135	
1980	96,910	27,930	9,686	11,276	8,051	5,783	10,598	8,879	3,289	2,138	1,292	1,183	2,233	1,910	1,001	13,762	202,921	
1981	107,202	24,882	13,972	10,081	4,289	4,941	13,762	4,904	3,733	3,820	1,862	1,103	3,762	1,702	1,335	30,401	231,751	
1982	146,941	21,449	8,444	10,251	3,816	6,681	10,150	5,257	4,236	3,839	2,107	839	3,927	1,299	1,579	20,356	251,171	
1983	169,845	16,593	12,307	8,351	4,162	12,707	10,500	4,892	2,931	5,579	1,877	733	1,820	838	1,766	16,250	271,151	
1984	161,586	25,989	12,665	7,814	4,141	7,952	10,701	4,838	3,534	4,869	2,286	777	2,045	1,028	2,321	19,326	271,872	
1985	174,501	24,333	9,765	7,131	4,168	9,920	9,016	4,089	3,167	4,290	1,700	476	1,636	1,101	1,821	15,649	272,763	
1986	213,514	29,672	14,788	12,328	6,388	14,291	10,661	6,874	3,562	5,037	3,278	1,019	2,163	1,548	2,567	21,004	348,694	
1987	242,299	51,174	14,472	21,170	10,222	15,118	13,977	10,008	4,866	5,690	3,858	3,318	2,827	2,381	2,264	29,162	432,806	
1988	244,391	57,883	10,849	19,820	12,317	14,216	14,093	12,697	4,980	6,156	3,638	4,469	1,825	2,878	2,494	37,993	450,699	
1989	225,349	57,670	10,534	14,039	12,232	11,653	10,526	10,041	3,690	4,453	1,925	1,888	2,322	1,837	1,359	26,363	395,881	

자료: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

<부표 3> 국별 신발 수출 추이-무역협회추계자료

(단위 : 천 켈레)

	총수출	신발		총수출 점유율
		수량	금액	
1965	175,082	5,676	4,961	2.8
1966	250,334	8,281	8,474	3.4
1967	320,229	9639	11130	3.5
1968	455,400	12,085	14,481	3.2
1969	622,516	11,015	13,096	2.1
1970	835,185	15,702	18,959	2.3
1971	1,067,607	37,545	38,334	3.6
1972	1,624,088	51,144	59,890	3.7
1973	3,225,025	81,085	104,173	3.2
1974	4,460,370	95,624	167,573	3.8
1975	5,081,016	101,602	181,736	3.6
1976	7,715,343	175,530	440,047	5.7
1977	10,046,457	177,002	501,654	5.0
1978	12,710,642	234,658	715,311	5.6
1979	15,055,453	205,135	765,361	5.1
1980	17,504,862	203,224	904,200	5.2
1981	20,992,660	231,751	1,049,300	5.0
1982	21,616,100	234,186	1,181,800	5.5
1983	24,222,500	256,856	1,269,700	5.2
1984	29,244,900	254,203	1,398,400	4.8
1985.7	15,795,600		844,700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 『신발수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조사』, 1985.

<부표 4> 신발류별 수출 추이

(단위 : 천달러, 천켄레)

수출 금액(천달러)							
	총고무화	포화	혁제운동화	케미화	일반혁화	실내화	기타
1962	18	101					119
1963	428	190					120
1964	684	29					165
1965	2,525	646			935		45
1966	613	1,060			3,209	132	450
1967	2,476	2,163			3,457		44
1968	4,626	1,821			4,374		225
1969	4,738	1,699		538	3,501		
1970	10,083	3,146	554	1,065	3,013		51
1971	14,939	13,798		3,736	5,753		12,265
1972	26,074	17,923	1,955	6,746	3,477	3,014	3,297
1973	31,532	47,633	3,550	7,969	4,820	5,824	8,650
1974	58,196	81,227	3,126	12,943	1,229	9,755	15,767
1975	45,287	64,556	41,968	12,843	2,802	12,106	20,574
1976	77,147	118,539	138,718	17,652	36,369	21,590	7,422
1977	89,790	117,770	169,061	23,290	63,984	21,772	29,613
1978	113,308	221,648	217,080	26,984	75,424	21,937	49,847
1979	135,765	256,727	219,755	16,149	90,126	29,049	17,790
1980	92,245	306,959	291,986	50,452	98,695	28,156	35,707
1981	67,508	362,143	397,887	39,468	92,055	31,389	58,873
1982	75,332	256,401	581,920	63,401	116,896	27,752	60,057
1983	74,373	277,800	656,197	68,204	112,123	25,478	55,524
1984	90,522	297,109	730,665	50,824	127,291	25,558	76,440
1985	73,114	183,216	1,028,686	72,010	129,496	26,020	56,679
1986	71,601	257,696	1,311,375	169,208	184,238	35,039	80,144
1987	59,364	399,339	1,564,996	308,715	307,919	52,589	131,279
1988	48,265	449,685	2,283,384	346,084	400,686	63,054	209,501
1989	41,391	387,179	2,198,682	379,023	365,846	67,445	120,434

수출수량(천족)							
	총고무화	포화	혁명운동화	케미화	일반혁명화	실내화	기타
1962	42	277					322
1963	462	496					186
1964	713	60					179
1965	2,632	1,477			547		93
1966	229	1,952			1,926	1,144	90
1967	1,968	3,249			1,817		14
1968	3,684	3,149			2,341		46
1969	3,415	3,449		573	1,448		
1970	6,804	5,467	117	1,044	1,358		45
1971	9,366	16,980		2,679	2,520		9,993
1972	15,457	22,693	476	4,877	1,265	5,075	3,518
1973	19,676	41,570	906	5,515	1,810	9,728	6,398
1974	25,295	47,104	749	5,449	244	14,536	10,618
1975	20,704	42,913	11,839	4,834	953	16,968	13,678
1976	29,947	60,967	37,254	6,255	15,459	23,986	7,593
1977	32,006	57,711	43,029	6,999	8,262	22,125	11,678
1978	37,393	89,133	47,781	6,373	7,854	20,618	28,724
1979	34,713	85,255	40,949	3,607	8,938	24,420	7,208
1980	21,988	82,386	48,073	8,854	9,073	20,504	12,043
1981	15,378	92,254	65,923	7,407	7,673	21,794	21,322
1982	16,367	70,287	99,709	12,083	11,357	21,442	19,926
1983	16,096	76,877	115,174	13,122	10,107	20,669	19,106
1984	18,017	77,552	114,149	9,277	9,779	19,364	23,734
1985	14,338	49,354	143,367	14,235	11,201	21,491	18,777
1986	13,704	66,965	166,261	34,217	16,268	27,420	23,859
1987	11,302	92,677	169,424	58,420	26,909	27,635	36,439
1988	7,599	87,335	192,943	48,027	30,961	40,987	42,847
1989	7,199	67,410	179,356	48,614	26,535	39,760	27,007

자료 : 한국신발 수출조합, 『한국신발수출통계』, 1990.

<부표 5>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신발업체 종사자 월평균 임금의 추이
(단위 : 원)

		사무판매직	생산직				기타	계
			소계	관리직	숙련공	비숙련공		
1976	대기업	101,653	35,606	88,067	36,697	26,146	64,852	38,569
	중소기업	81,216	35,204	83,591	35,922	26,776	61,996	37,763
	합계	100,627	35,586	87,523	36,664	26,186	64,704	38,864
1977	대기업	121,787	43,720	109,887	45,910	33,531	78,681	47,554
	중소기업	100,484	44,719	105,900	45,221	34,622	77,546	47,891
	합계	120,073	43,793	109,208	45,863	33,621	78,590	47,578
1978	대기업	149,732	58,518	141,966	61,524	44,723	99,704	63,101
	중소기업	128,945	62,205	142,299	62,492	49,408	106,757	66,414
	합계	147,379	58,868	142,034	61,614	45,163	100,406	63,406

자료 : 부산은행, 『부산지역 신발제조업 경영실태조사보고』, 1979.

<부표 6> 1970년대 신발공업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추이
(단위 : 달러)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한국	가죽	0.15	0.19	0.24	0.28	0.38	0.44	0.55	0.75	0.71
	고무	0.16	0.16	0.22	0.25	0.32	0.42	0.52	0.63	0.64
브라질		0.34	0.41	0.48	0.57	0.66	0.74	0.84	0.88	0.86
홍콩		0.46	0.54	0.58	0.58	0.71	0.80	0.94	1.05	1.16
이탈리아		0.98	1.21	1.32	1.72	1.71	2.14	2.58	3.09	3.52
일본		1.21	1.57	1.18	2.16	2.37	2.88	3.56	3.60	3.74
스페인		0.42-0.47	0.55-0.62	0.69-0.78	0.85-0.98	1.06-1.20	1.53	1.98	2.74	2.92
미국		2.62	2.72	2.90	3.08	3.27	3.48	3.75	4.09	4.42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April, 1982, World Bank : Development in a Global Context, Awold Bank Country Study, Washington D. C. : World Bank, 1984, p. 198. (박영구, 앞의 책, p.298에서 재인용)

주 : 1)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은 가죽신발 부문, 홍콩은 고무신발 부문, 스페인은 의류, 시발, 피혁산업부문, 미국은 고무를 제외한 신발부문임, 2) 세금 및 각종 공제 전임.